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에 27홀 골프장

214만㎡ 3000억원 들여 조성
국내 최장 루지·치유의 숲 등
휴양시설 갖춘 레저단지로 개발
부지 82% 매입...로드맵 순항

관광산업 육성에 집중해온 광양시가 구봉산관광단지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 27홀 골프장 조성과 국내 최장 루지 구축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봉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주)LF리조트가 2017년 광양LF스퀘어 개장과 함께 광양시에 제출한 지역협력사업으로, 황금동 일원 214만 6929㎡ 부지에 총 3000억원을 들여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봉산 자락에 조성될 관광단지는 국내 최장 루지, 27홀 골프장, 숙박 300실, 치유의 숲, 테마정원, 산책로 등 스포츠, 휴양시설을 두루 갖춘 종합 레저단지로 개발된다. 시는 관광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체류형 관광,

500여 명의 고용 창출 등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성공적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2019년 TF팀을 발족하고, 이듬해 관광단지팀을 신설해 행정지원을 집중해 왔다. 골약동주민센터 3층에 관광단지 조성 지원 사무실을 설치해 토지매입, 사업 추진상황 안내 등 행정력을 펼친 결과, 9월 현재 애초 부지의 82%를 매입해 사업요건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라남도도와 함께 구봉산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LF네트웍스가 법인 (주)LF리조트를 설립하며 안정적 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 2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기반시설 설치 검토 등 촘촘하고 유기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김경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13개 부서장을 총괄하는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TF팀'을 꾸렸다. 또 지난 4월 (주)LF리조트 측이 관광단지 확장 의지를 내비치며 추가로 토지 74필지(29만6038㎡) 매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가분에 대한 주민 설명회,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

난 6일부터 매매계약 체결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광양시는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을 전라남도 관광단지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봉산관광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인근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소재전문과학관, 구봉산 전망대, 광양와인동굴 등과 연계해 관광 활동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등 문화예술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광양읍권과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수상 레저 관광 명소로 조성 중인 섬진강권역을 잇는 교두보 역할도 기대된다. 김상균 광양시 관광단지팀장은 "구봉산 관광단지는 광양에 최초로 조성되는 종합레저단지로 지역민이 먼저 일상에서 즐기고 외부 관광객이 만족하는 고급 문화·레저 힐링 명소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세수 확충, 황금·황길지구 도시개발 촉진,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김철우(가운데) 보성군수가 최근 시민법인 자율방범보성군지회 회원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사회단체 소통간담회 지역민 호응

30개 지역단체 참여 성료

보성군이 올해 7월부터 이어왔던 지역 사회단체와 소통간담회가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소통간담회에는 지역 30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주요 군정 이슈와 단체 활동 상황 등을 공유했다. 사회단체 소통간담회는 민선 7기 군수 공약으로 2018년부터 꾸준히 만남을 계속하고 있으며, 주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뉴미디어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 발전과 단체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김철우 군수 등 군정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에 관

심을 나타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법인 자율방범보성군지회 이용구 회장은 "보성의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만남이었다"며 "사회단체 모두가 하나의 지역공동체로서 활기찬 보성군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안 의견을 검토해 군정 운영에 반영하고, 사회단체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사회단체 소통간담회는 지역사회의 상생을 만드는 동력"이라며 "군민의 안전을 지키며 상호 이해와 존중의 마음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복지시책 발굴서 해결까지...주민이 직접 챙긴다

여수시 국동 이어 문수동

마을복지계획단 발족·워크숍

여수시가 행정의 힘이 닿지 못하는 곳을 찾아 주민 스스로가 복지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마을복지계획단'을 발족했다. 마을복지계획단은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복지 의제를 직접 발굴, 논의하고 계획해 마을 주민의 '어려운 복지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는 주민중심의 복지공동체다. 앞서 지난 8월 26일 국동마을복지계획단이 첫 발족한데 이어 이날 문수동 마을복지계획단이 발대식과 워크숍을 열었다. 문수동은 지난 7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직능단체회원, 다양한 복지종사자, 주민 등을 공개모집해 30명의 마을복지계획단을 구성했다. 나머지 25개 읍면동도 자체적으로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국동과 문수동은 올해 12월 말까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지역주민



주민 스스로가 복지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문수동 마을복지계획단이 발족했다.

육구조사,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위한 실행 방법을 담은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웃 분들이 나서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끔 형제처럼 늘 살피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여수의 미래가 잘 그려질 수 있게 할

동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수동 김석호 마을복지계획단장은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을의 복지 의제를 깊이 고민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군 매니페스토 2개 분야 최우수상

곡성군이 2021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자민주주의 강화 분야와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곡성군은 올해 마을회관과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생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응모해 전자민주주의 강화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마을회관 270개소에 터치 모니터를 설치하고 군내버스와 버스정류장에는 정보안내기를 구축해 각종 생활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다. 공동체 강화 분야에선 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군과 교육지원청, 민간이 함께 미래교육재단을 만

들어 지역교육 공동체를 조성한 사례가 호평을 받았다. 군은 2020년 미래교육재단을 출범하고 꿈돌자 학교, 꿈키움마루, 곡성 유학, 청소년 관현악단, 진로진학 지원, 생태환경교육 등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군민의 삶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수상의 결실로 빛나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kwangju.co.kr

구례군 코로나 극복 희망근로 지원사업

구례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심화와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참여자는 중위소득 70% 이하 및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이다.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70여 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다.

근로기간은 9월부터 약 2개월이다. 보건의료원 백신접종 센터와 선별진료소, 구례군청 등 공공기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소독활동 등의 방역사업, 관내 관광단지 환경정비 등에 투입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근로사업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순천시-일본 이즈미시, 청소년 교류사업 재개

순천시가 자매도시인 일본의 이즈미시와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순천시에 따르면 허석 순천시장과 사이노키 신이치(椎木 伸) 이즈미시 시장은 최근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중단된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순천시와 이즈미시 시장은 2012년부터

추진 중이었던 청소년 교류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 시장의 합의에 따라 11월에는 줌(ZOOM)을 활용한 청소년 비대면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내년 부터는 그동안 중단된 한국과 일본의 교류 학생 홈스테이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즈미시장은 순천만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축하했다. 순천시와 이즈미시는 이즈미시의 랍사르스지도시 지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즈미시는 10월 예정된 제14차 랍사르스회에서 랍사르스 습지 도시 인증을 앞두고 있으며, 허석 순천시장은 랍사르스 습지 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 초대회장을 맡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